

수요집현강좌 보고서(3-1)

전공	소프트웨어학과	학번	18011690	성명	이정안
<p>이슬람의 세계관을 설명하기에 좋은 사례로 현재 뜨거운 감자인 이슬람과 하마스의 분쟁을 사례로 꼽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슬람과 유대인의 연관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유대인의 강제 이주 사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는 단어로 유태인의 발음의 변형이다. 유대인은 흔히 기독교문화에서 예수를 팔아넘긴 제자 유다의 이름을 따와(라틴어 유래) 중국 유태이를 거쳐 변형되어온 단어다. 기원전 587년에 유대인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이를 해방시켜준 인물이 있었으며 해방 이후 63년에 로마제국의 속주가 된다. 강력한 로마에 반기를 든 유대인들은 당시에 도저히 어이없는 사건으로 회자되며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앞에 반기를 든 약한자의 입장이었다. 66년에 로마에 반기를 들었지만 너무 강력한 탓에 70년에 박살나게 된다. 이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초토화가 되었다. 왜 유대인들은 강력한 로마에 반기를 들었는지는 이후에 나온다. 예수살렘이 무너지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가고(승리의 전리품)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 이때 보레스라는 인물이 제 2성전을 세웠지만 이를 로마가 다시 박살내게 된다. 다시는 까불지말라는 본보기로 통곡의 벽만 남겨두었다. 유대인은 1년에 정기적으로 3번의 제사를 지내지만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 이후 다시한번 성전을 세우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제 2차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해당 신전은 로마가 주신으로 섬기는 쥬피터(유뽀뽀르)신전을 세우려고 했다. 로마와 유대인의 관계를 좀 더 알아보려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간의 관계도 이해가 되어야 한다. 중동에 사는 유대인은 미즈라힘이라고 부르고, 스페인인 세파리딤, 동유럽은 아쉬케나짐으로 부른다. 실제 삶도 그리스인들은 못살고, 이슬람교도들은 잘산다. 사람들이 흔히 이슬람과 유대교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거리가 멀다.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이를 설명하기 좋은 예수의 말로 “뭘 먹는게 중요한 것이 아닌 뭘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로 실상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만든 사람들은 박해받은 유대인들이다. 1880년에 러시아에서 유대인 박해가 발발하면서 유독 유대인중에 빨갱이가 많은 이유도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산주의의 80%가량이 유대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레닌, 트로츠키 등.. 이상주의자가 생기는 이유도 현실에서의 박해가 많다는 것으로 증명 가능하다. 이후에 드레이퓔스 사건을 예로 설명을 하자면 프랑스의 유대인은 진보의 상징으로 최근에는 좀 젊은 유대인들에 의견은 다르긴 하지만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유대인이 살 수 없다면 다른 나라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유대인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찾거나,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로 ‘유대인의 나라’라는 책이 출판될 정도의 상황이었으며 여러 곳을 다니며 유대인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유럽에서는 우간다를 제안했지만 당시 유대인은 우간다라는 땅이라도 좋아했고 협정 7차때 팔레스타인을 제안 후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다. 하지만 이미 해당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비극의 씨앗이 되게 된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신부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땅은 좋으나 이미 사람이 살고 있음) 테오도로 헤르스는 이날 “나는 이날 이스라엘</p>					

수요집현강좌 보고서(3-2)

전공	소프트웨어학과	학번	18011690	성명	이정안
<p>이라는 국가를 만들었다.". 테오도로 헤르스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사람이었을까? 실상 헤르스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교에 대해 많이 무지했다. 유대인 독립에 의해 가장 앞장섰지만 시온주의(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몰랐다.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후세인(맥마흔 서한)이 편지를 통해 튀르키예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당시 영국은 중동의 아랍지역을 나눠먹기로 했지만, 전쟁 중 패배할 것 같다는 생각에 팔레스타인에게 3가지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이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전쟁중 팔레스타인에게 약속을 한 이유는 단지 유대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서 3가지 약속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약속은 아랍 항쟁과 벨포어 선언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신탁통치를 시작했다. (신탁통치란, 나라가 안정화 되면 독립) 이후에 처질이 독립국가의 나라를 그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다. 이에 관한 설화로 처질이 평소 업무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지도상에 분단점을 그리다 딸꼭질을 해 모양이 이상하게 나왔다는 말이 있다. 당시 UN에서 투표를 통해 유대인에게 땅을 준다 안준다로 정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아랍이 이스라엘에 땅을 주었지만, 당시에 아랍은 투표가 통과되든 안되든 이스라엘에게 땅을 줄 마음이 없었다. 따라서 투표가 결의 되자마자 이집트에 폭격을 가했다. 하지만 이후에 독립이 지켜지면 이 사건을 아랍은 대재앙이라고 칭하고,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후에 3차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사유는 아랍이 바다를 막아버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집적인 타격이 발생하자 이스라엘이 선빵을 날려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 6일만에 속전속결로 끝나고 땅을 뺏었지만, 현대에 전쟁에 가장 문제되는 사건으로 다뤄진다. 아랍은 이를 가장 문제로 삼고 현재 하마스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집트의 평화협정으로 이스라엘은 땅을 아랍에게 다시 돌려주고 평화를 약속했지만 이후 암살이 이뤄짐 이 암살사건은 실제로 생방송중 이뤄져서 당시에 엄청난 파장이 이뤄지게 되었다. 당시 1981년에 이뤄진 암살사건은 무슬림 형제단이 작업하였는데 이후 하마스도 이어지게 된다. 이번 하마스 사건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4가지는 가자지구, 알 아크사 모스크, 유대인 정착촌,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를 꼽는데 여기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둘은 1979, 1994년에 각각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고 위에서 설명했다. 이 외에도 독립전쟁에서 발발한 뒤 땅에 관한 조약, 유대인의 땅 침범 등 둘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엔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 때문에 약 2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현사태의 문제점은 현시대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으로 쌓아온 각 국가간의 세계관의 충돌로 볼 수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가 생겨난 이유도 하루아침에 생겨난 일이 아니듯이 나치가 벌인 만행, 역사속에서 반복되는 문제, 유대인은 나쁜놈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현대까지 진행된 만행이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박해속에 유대인들은 시온주의를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고 유대국가를 탄생시키고 박해당한 이들로부터 갇아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지금까지 이슬람의 세계관을 알아봤는데 강의에서 현 시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어서 좋았다.</p>					